

전남 근로자 10명중 4명 비정규직

1년새 2만6000명 늘어…비율 전국서 두번째로 높아
비정규직 600만 시대…광주 18만6000명 전남 20만명

전남지역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새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었다. 반면 정규직은 1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2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2.5%를 차지했다. 이는 비정규직 비중이 강원(44.4%)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남지역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46만명에서 47만명으로 1만명 증가했다. 1년새 비정규직 근로자는 2만6000명 늘어나 20만명을 돌파한 반면 정규직은 오히려 1만6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1년새 4.7%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8년 8월 17만3000명에서 2009년 8월 19만8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8월 17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들어 다시 늘어나 8월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18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50만

5000명의 36.8%를 차지했다.

광주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커졌다. 비정규직은 2007년 8월 18만6000명에서 2008년 19만명, 2009년 19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8만3000명으로 감소했고 올들어 3000명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 2007년 26만8000명에서 2008년 27만6000명, 2009년 29만5000명, 2010년 31만5000명, 2011년 31만9000명으로 4년 만에 5만1000명이 늘었다.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000명으로 지난해 8월 568만5000명 늘었고, 60세 이상도 7만4000명 증가했

보다 30만9000명(5.4%) 증가했다. 정규직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3.3%에서 34.2%로 0.9%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570만3000명, 2008년 544만5000명, 2009년 575만4000명 등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0~59세)의 비정규직이 지난해 112만1000명에서 올해 121만2000명으로 9만1000명 늘었고, 60세 이상도 7만4000명 증가했



다. 비정규직 증가 폭의 53%(16만5000명)를 50대 이상이 차지한 셈이다.

광주비정규직센터 명동용 소장은 "전남지역 비정규직은 조선소와 건설 노동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지역의 건설 공사가 크게 늘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가 그만큼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spark@kwangju.co.kr



2일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착공식이 열린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현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임성훈 나주시장, 김중겸 한전사장 등 참석자들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총리 “나주 혁신도시 내년 인프라 구축 완료” 한전 신사옥 착공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2일 나주에서 신사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냈다. 한전 신사옥 착공은 단순히 연매출 39조원에 이르는 공기업의 사옥 신축을 넘어 광주·전남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한민희 국토해양부 차관, 강운태 광주 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치사를 통해 “한전을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면 이 지역은 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게 된다”면서 “정부는 한전 본사 착공식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80개 공공기관의 청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 김종겸 사장도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은 광주·전남지역의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임직원 1만9000여명 중 나주 본사로

이전하는 인원은 1425명이다.

한전 신사옥은 총 1853억 원을 투

입, 14만9372㎡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1층(연면적 9만3222㎡) 규모로 2014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사옥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발전 설비, 바이오가스, 소수력 및 풍력 발전 설비 등 각종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에너지 생산형 건물’로 지어진다. 신사옥에 설치될 다목적 대강당, 콘퍼런스홀, 디지털 도서관 등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이날 한전 신사옥 착공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도 본궤

도에 오르게 됐다.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32만7000㎡에 1조4175억 원을 투입, 조성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인구 5만 명의 자족형 거점도시로 건설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호남 초·중등 영어 학력평가 오늘 접수마감

▶ 광주일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화원제 18홀, 퍼플리 9홀

VIP 정회원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인 상시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회 1회 18홀 기준)
 -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칙개기족 또는 직직원)
 - 무기명카드 1대 할인 : 그린피 50% 할인!
-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휴먼 정회원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징회원 동반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D형) 징회원 1인 충회원(다음날 배우자, 칙개기족 또는 직직원)
 - 징회원 동반인 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 VIP회원 및 해피니스CC 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개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인납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

